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Jim Lardner at AFR

202-466-1854 / jim@ourfinancialsecurity.org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새로이 발표된 논문 에서, 금융 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과 이들의 연립 파트너들은 제한된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특히 모기지 용자 마켓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제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9 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 5백 30만명이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EP 대출자들은 사기와 약탈적인 관행에 매우 취약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LEP 소비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 금융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포함해 LEP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 광고를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합니다.”라고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판매된 후, 복잡한 모기지 옵션과 약관을 포함한 사후 관리는 영어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반된 논문 은 불리한 모기지 약관을 뒤늦게 발견한 후에 용자 변경에 큰 어려움을 겪은 LEP 주택 소유자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 커플은 그들의 용자가 고정 금리 완전 상각 모기지로 이해하고 있었고 10년 동안 이 모기지에 대해 성실히 상환금을 납부한 후에야 이 모기지가 실제로 이자만을 갚게 모기지기였기 때문에 원금을 전혀 갚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 납부금이 1,983달러에서 3,3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커플의 친구가 해당 용자업체를 소개해 준후 통역을 담당했으며 지나고 보니 이 친구가 대출 담당자, 소유권 회사, 그리고 클로징 담당 변호사와 재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방 규제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주요 문서들이 적어도 8개의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아랍어, 그리고 아이티 크리올)로 제작해 요청시 배포; 연방 정부의 불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언어 서비스 개선; 금융기관들에 대한 언어 서비스 표준 지침 제공; 모기지 신청자들의 선호 언어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 및 기타 규제기관들이 구체적인 단계들을 시행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단체들이 이 논문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소비자 법률 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국립 CAPACD, 라 라자 협의 (National Council of La Raza), 엠파이어 법무 센터(Empire Justice Center), 주택 리소스 센터(National Housing Resource Center), 컨슈머 액션(Consumer Action), 공정 주택 연합(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그리고 MFY 법률 서비스(MFY Legal Services, Inc.)

금융 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은 200 개 이상의 인권, 소비자, 노동, 기업, 투자자, 신앙 기반 및 시민 사회 단체의 무소속 비영리 연합체입니다. 2008 년 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AFR 은 경제와 국가 전체를 위한 강하고 안정적이며 윤리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is translation was made possible by the work of Consumer Action. The press releas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